

“화두 의심 안 풀려 답답하다고?”

정진이 있으며,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다. 재가자들에게 무리한 수행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더니 원각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은 많이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깨닫는데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증이 더 중요합니다.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지 출가한 스님들은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공부인이 많은 것이지,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당암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때 90여 명의 재가자들이 결제를 하고, 1주일 용맹정진에는 250여 명이 입방하고 있다. 삼십대부터 팔십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해암 스님 때부터 지도를 받아 온 20년이 넘는 사람도 있다.

“용맹정진은 혼자서 하려면 하루 저녁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중과 같이 하면 대중의 운김으로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스님들께서도 대중과

재가자들은 어떻게 참선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더니 “자기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드리고 간절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

재가자들을 지도하신다고 물 만난 고기처럼 두려움 없이 스님께 여쭙었다. 초심자들은 화두 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좋은 공부방법이 있는지를 또 다시 여쭙었다.

“화두는 분별심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화두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분별심이 답이 아닙니다. 화두는 꼭 막힌 데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별심으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화두 의심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하면서 계오름을 피우거나 포

에 깨달으면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면서 시험공부를 했다. 그때 수많은 성인들이나 학교 선생님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강박관념을 불러 일으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날 증봉암의 도립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됐다.

“선도 악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도 쉬어야 참말로 살 길이 나온다.”

‘선과 악 양면을 쉬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목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꼈고, 그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도립 스님이 한 번 읽어 보라고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보조법어> <법구경> 등의 책을 건네 주네요. 그래서 하던 공부는 팽개치고 경전들을 읽어나갔지요. 이런 나를 보고 도립 스님이 출가를 권했습니다.”

문득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갠지 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백천만억 겁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경전을 수지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원각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성품이 대쪽 같았던 해암 스님 밑에서 행자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해인사 증봉암에서 은사스님과 단 들이 생활했다. 방사가 한 칸 밖에 없어서 은사스님은 아랫목에 원각 스님은 윗목에 앉아서 참선을 했다. 원각 스님께서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해암 스님은 누구에게라도 법문해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증봉암에서 새벽예불을 끝내고 해암 스님이 입선축비를 치고 나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다”고 말씀을 꺼내시면 밥 할 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님 저 밥 지으러 가야 합니다”라고서는 일어서야만 법문은 끝이 났다. 해암 스님께서는 ‘상좌 하나에 지옥이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원각 스님에게 수행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밥할 때는 밥물이 넘으면 안 되고, 빗자루질도 밭듯이 하고 방을 닦을 때도 금방 닦은 곳을 밟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닦게 했습니다. 틈집하는 법, 장작패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출가한지 40년이 넘었지만 은사스님의 심문의 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행자생활 하면서 때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불법에 든 것이 너무 좋아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은사스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죽는 시늉까지도 했어요. 은사스님께서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나무라시고 잘하는 일은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간혹 ‘너는 요즈음 사람 안같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마도 은사스님께서 참으로 많이 아끼신 것 같다.



원각 스님 (해인사 유나)

잠 쏟아지고 망상 돌아나도 극복해야 ‘진전’

논리적 사고로는 참선 안돼 ... 활구 깨쳐야

경제 어려울수록 본래마음 찾는 공부하라

원당암은 ‘해인사 1번지’ 같은 상징적인 암자다. 해인사 원당암은 조계종 10대 종정을 지내신 해암 스님께서 중창해 열반하실 때까지 주석하셨던 곳이다. 지금은 해암 스님의 상좌 원각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원각 스님은 해인 총림의 유나소임을 맡고 있으며, 원당암 달마선원의 선원장이기도 하다.

원당암에 들어서면 산중사찰 같지 않고 도회의 절처럼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보광전, 선방, 심검당, 미소굴, 무설실, 염화실 등 열 채가 넘는 당우들이 가야산 중허리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혀 산을 거슬러 지 않는다. 산과 당우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

원각 스님은 해암 큰스님께서 말년에 머물렀던 미소굴(微笑窟)을 ‘해암 스님 기념관’으로 꾸며 놓았다. 그 안에 들어서면 해암 스님께서 법문을 기록해

둔 원고와 돌보기, 주장자 등이 전시되어 있어 큰 스님의 체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해암 스님의 금구(金句)가 새겨진 통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서 있다. 해암 스님의 간결한 사자후를 듣는 것 같아 이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해암 스님은 생전에 “마음공부 하는데 어찌 승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나”며 원당암을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짝 열어놓았다. 현재 달마선원은 국내 최고의 재가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은사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대로 행해 온 원각 스님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재가자들의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가 있으며 산철에도 60일씩 결제를 해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음력 7월 1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음력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의 7일 철야 용맹

같이 공부하면 대중이 필반은 공부를 해준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진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이 공부는 애쓰는데서 깨닫기 생긴다고 했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상좌 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다.

“사람 몸 맑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

원각 스님 또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라 행자들에게 강조한다.

“몸뚱이가 있어야 공부하는 것, 몸뚱이가 말 잘들을 때 공부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육신도 말을 안 듣고 정신도 혼미해져서 공부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해야 합니다.”

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계를 극복해야만이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각 스님은 현대인들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참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용성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용성 스님께 와서 도를 물으니 ‘네가 허공을 허공과 똑같이 그려 낼 수 있나?’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이 ‘허공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가도 없고 가운데도 없고 물을 뿌려도 물이 들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이 허공 아닙니까?’ 하니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너보고 그렇게 말하더냐? 네가 허공을 화작(化作)해 가지고 허공의 본모습을 매가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허공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은 설명이고 말이지 허공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활구(活句)하에 깨달으면 불초(佛祖)의 스승이 되고 사구(死句)하

스님들의 건강관리는 파워봉이 최고!

20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비구니스님들께 권하셔서 전국 선방에 빠짐없이 보급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많은 분들이 사용중입니다.

- 미국 FDA가 인정한 육각성 파워봉 -

변변한 광고없이 입소문으로 20년을 이어온 힘의 원천은 속효성 때문입니다. 한번만 체험해보면 몸이 먼저 알게되는 초강력 파워!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어디든지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목, 어깨, 허리, 좌골, 무릎, 발목, 손목, 등, 고관절

미국FDA등록 MEDICAL DEVICE NO. 890.3490

특허청등록 디자인 0274541

한번사용해보신분이 선물용으로 여러개씩 구입하는 이유를 알고싶지 않으십니까?



파워 21봉

특별보급가 60,000원



파워 13봉

특별보급가 39,000원 (시중가 36만원)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보급중!



www.chgg.co.kr 천일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7 동협 1149-12-090771 예금주: 이영숙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뻐뻐,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두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 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 POLA 팔찌



△ POLA 반지

* 18년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오스페셜 (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 (06.11.22)방영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 내일신문, 조선닷컴, 동아닷컴 보도

콜레스테롤함량, 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도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동협 1149-12-090771 예금주: 이영숙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동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파워봉, 글반사방101, 척추사방(신선대)